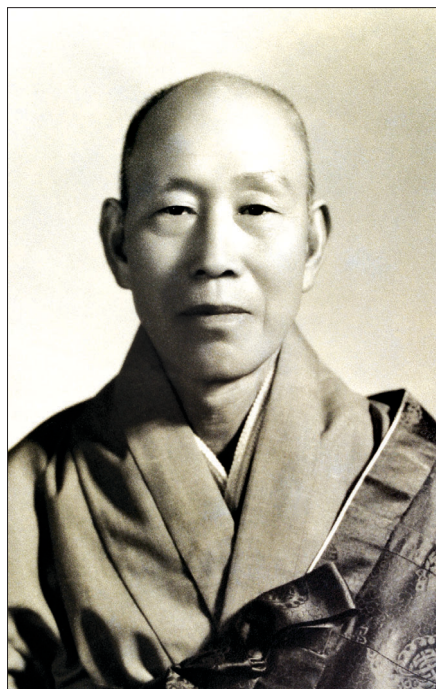


1961년 해안 스님의 뜻에 따라 살이게될 때인 회갑일에 열린 생전장례식 모습. (동명 스님 제공)



동명 스님의 은사인 해안 스님 영정사진



2014년 4월 6일 해안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전북 부안 내소사에서 재현된 생전장례식 모습

다시 부르는 열반가 “꿈이로구나”

근대 선지식 해안 스님 40주기... ‘생전장례식’ 재현 화제

“이것이 무엇이고 사대가 흘러지면 내 몸이 없어지고 마음들 어찌 멀하지 않겠는가 몸도 마음도 모두 환(幻)이라 이제 다시 무엇이 있으랴.”

호남 선맥의 큰 기둥이었던 해안 스님의 생전장례식이 53년 만에 재현됐다. 한국불교사에 유례없는 이번 장례식은 1961년 해안 스님의 회갑일 열린 생전장례식을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재현한 것이다. 죽은 이가 타야 하는 상여를 산 사람이 타는 이날 생전장례식은 영상으로 녹화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생전장례식’에 동참하기 위해 스님의 상좌 서울 전등선원 선원장 동명 스님을 비롯한 500여 스님들과 스님이 생전에 지도했던 전등회 회원 등 전국각지에서 7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생전장례식에 앞서 해안 스님이 조실로 주석하던 내소사 지장암 서래선원에서 7일 간 몽맹정진하기도 했다.

동명 스님은 생전장례식 재현에 앞서 “오늘 우리

들은 해안 스님이 남기신 생생한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가려한다”며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보며 또한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생전장례식은 반야심경을 비롯한 간단한 불교의식과 함께 동명 스님이 지장암 서래선원 앞에서 해안 스님의 진영에 예를 올린 뒤 상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생전장례식에서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화암 스님, 현각 스님이 인례한 꽃상여는 지장암 서래선원을 떠나 일주문을 돌아 부도전을 향했다. 이는 53년 전 해안 스님이 회갑을 맞아 스스로 마련한 장례행렬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휴일을 맞아 내소사를 찾은 참배객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이 행렬을 지켜봤다.

동명 스님은 일주문을 지나 천마 숲길을 거쳐 부도전에 이르는 동안 생전 해안 스님이 지은 열반가를 불리는 목소리로 노래했다.

생전 회갑연서 장례식 열고 무상함 설해
동명 스님 “은사 스님 가르침 계승 위해”
전등회원 비롯 700여 대중 범문 되새겨

열반가는 무상의 가르침을 담은 것으로 세속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기를 당부하는 말이었다.

꿈이로구나, 꿈이로구나
사대(四大)가 무너지니,
육근육근(六根六塵)도 없어지며
나무아미타불

허망(虛妄)하네, 허망(虛妄)하여
환진(幻塵)이 없어지며,
환심(幻心)도 없어지며
나무아미타불

됐다”며 “다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해안 스님께서 생전장례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상여를 만들어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음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해안 스님은 1901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해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27년 내소사 주지를 역임했다. 스님은 1932년 내소사 앞에 계명학원을 설립해 무취학 무학성년을 대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벌였으며, 1945년 금산사 주지, 1946년 금산사 서래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1931년 월명선원에서 수선안거이래 36하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1974년 내소사 서래선원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올곧은 수행으로 제방의 모범이 되었고 재가자선방과 불교학교를 설립해 재가자수행과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금강경 해설 등 스님의 법문은 지금까지도 명강의로 전해지고 있다. 내소사=조동계 전북지사장

“은사 스님 가르침 널리 펼 것”

서울 전등사 전등선원 동명 스님

“해안스님께서서는 장사하는 사람이든, 농사짓는 사람이든, 스님이든, 누구라도 1주일만 수행 정진하면 도(道)를 깨달을 수 있다며 정진을 강조하셨다”며 “지금 비록 은사스님은 가시고 없었지만, 53년 전 스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여러 스님들과 함께 걸으며, 삶이란 이런 것이 구나를 느끼게 됐다고 하셨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선원사 대중과 내소사 스님들을 비롯해 각처에서 참석해 준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의 생전장례식이 은사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로서 스님이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되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961년 당시에는 내소사 1km 인근에 1000여 명이 모여 스님의 생전장례식을 함께 했다.



선원사 승가대학원 학인 스님들이 맨 꽃상여 뒤를 내소사 봉혜선원장 철산 스님,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 선원사 주지 법만 스님, 내장사 주지 해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등회 회원 등은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부도전에 당도한 꽃상여에서 내린 동명 스님은 부도전에 올라 해안선사 열반 40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다.

은사 스님의 장례행렬을 재현한 동명 스님은 남다른 감회에 북받친 듯 했다

다례제를 마친 동명 스님은 “은사스님의 진면목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 생전 장례식을 재현하게



4월 6일 생전장례식 이후 봉행된 다례제.



재현 장례식에는 500여 스님들이 참석했다.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 영산불교가 21세기의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5년 연속 초파일 12만 봉축연등 달성, 불자 여러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영산불교 현지사가 부처님 정법교단으로 순조롭게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영산불교 간행 불교서적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16주 1위,
운주사 연속 27주 1위. 15만부 돌파!!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저,
각 450쪽 475쪽 가격 각각 18,000원



법문집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집 1 ~ 12권」
자재만현 큰스님의 정기법회 법문을 모았다.

경전 및 해설서

「영산불교와 본문모법연화경」, 「영산불교사천수경」,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영산불교지장보살본원경」

행복하게 잘 사는 길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부처님천도까지」

신불교 영산불교의 법세계

「영혼체윤회론」,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붓다의 메시지 요해」, 「붓다의 메시지 존명」, 「영산불교의 법세계」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4월 정기법회 : 4월 20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교 이론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7회제)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매번 1500명 이상 운집하는 대법회에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법회 및 재일 안내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 본사 및 각 분원
제 일 - 음력 1일, 15일, 25일 : 본사 및 각 분원
음력 5일(미타제일) : 대전분원
음력 8일(약사제일) : 고성분원
음력 18일(지장제일) : 대전 대구 제주분원
음력 24일(관음제일) : 서울 부산분원

현지사 ‘초파일 10만 봉축등’ 접수합니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초파일 봉축등
접수하여 부처님 회상과 인연 맺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분원 및 부설기관 안내

- 춘천본사 ☎ 033)243-1787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천도재상담실 ☎ 033)257-2898
- 제2본사 ☎ 064)783-53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복로 311
- 부산분원 ☎ 051)554-515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BD
- 대전분원 ☎ 042)525-5325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영산불교대학 ☎ 070-8870-5345
관음태교원 ☎ 070-8870-5345
- 고성분원 ☎ 033)681-551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7
- 서울분원 ☎ 02)453-595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대구분원 ☎ 053)654-5557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일본분원 ☎ 001-81-827-31-1611
일본국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오프스 3-3-10